

# 습한 날씨 '열돔 현상'에 치솟는 전력 사용량

### 광주·전남 5월 전력판매량 지난해보다 11%↑ ...전력수급 비상 김부겸 총리, 한국전력거래소 방문...전력수급 대응체계 점검 짧은 장마·이른 폭염에 6~7월 광주 이마트 선풍기 매출 65%↑

이번 주 덥고 습한 날씨에 '열돔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전력사용량이 치솟을 것으로 전망돼 전력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올 들어 제조업 생산이 회복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은 산업용 전력을 포함한 전력판매량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19일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광주·전남 전력판매량은 338만1853MWh(메가와트시)로, 1년 전보다 11.0%(33만5780MWh) 증가했다. 광주 전력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0%

늘었고, 전남은 11.8% 증가했다. 올 들어 1~5월 누계 전력판매량은 광주 4.8%·전남 5.2% 늘었다. 올 1월 광주·전남 전력판매량은 전년보다 3.6% 증가한 뒤 4.4%(2월)→3.7%(3월)→3.6%(4월)→11.0%(5월) 등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5월 광주·전남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15만5610MWh로, 지난해보다 18.2%(33만2229MWh)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달 증가율(6.2%)의 3배 수준으로 뛴 수치다. 이번 주 광주·전남에는 한층 강한 폭염이 올 것

으로 예보되면서, 이주 중반이 전력수급의 첫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기온은 34도에 달하며,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체감 온도는 35도를 넘어서는 '찜통' 더위가 예상된다. 지난 15일에는 전국 최대전력수요가 88.6GW까지 치솟아 올 여름 들어 최고기록을 썼다. 역대 여름철의 최고치는 111년 만의 폭염이 닥쳤던 2018년 7월24일의 92.5GW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 폭염과 산업생산 증가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9만4400MW·상한전망 기준)를 경신할 수 있다고 보고 이날부터 8월20일까지 3주 동안 전력수급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이주 전력예비력이 상한전망처럼 5.5GW 밑으로 떨어져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발령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력수급 비상단계 발령은 2013년 8월 이후 한

번도 없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한국전력거래소 나주 본사를 방문해 전력수급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체감 온도 35도를 웃도는 '한중막 더위'가 지속되면서 올 여름 냉방기전 매출은 전년보다 증가 추세다. 광주지역 이마트 3개 점포의 6월1일부터 7월18일까지 선풍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5% 뛰었다. 에어컨(7.3%)과 '써클레이터'라 불리는 공기순환기(5.4%)도 매출 오름세다.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 이마트는 오는 28일까지 '냉방기전 기획전'을 연다. 제휴카드로 행사 상품을 사면 최대 20만원 할인과 신세계상품권 증정 혜택을 준다. 여기에 이마트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인권도 배포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KJ카드 쓰고 상품권 받아주세요"

### 광주은행 다음달 15일까지 행사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광주은행이 KJ카드(신용·체크)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모든 가맹점에서 1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가운데 뽑힌 1000명에게는 GS칼텍스와 롯데마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5000원~최대 2만원)이 주어진다. 50만원 이상 사용한 1명에게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스키야박스 일일 이용권을 준다. 나주 '중흥 워터파크'에서 신용카드 결제하면 본인에게는 35%, 동반 3인까지는 2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환승 '금호아쿠아리움'은 동반 1인까지 30% 할인이 적용된다.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는 신용·체크카드 결제 때 모두 동반 1인 30% 할인을 받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반려동물 장난감도 친환경" 19일 (주)광주신세계 직원들이 지하 1층 반려동물 브랜드 'MIMINKO (미밍코)' 임시매장에서 친환경 소재 장난감, 간식, 영양제, 전용 의류 등을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오는 25일까지 운영된다. <광주신세계 제공>

## 세얼굴

### "지역 특성에 맞는 통계 개발 최선 다할 것"

#### 김대호 호남지방통계청장

"호남·제주권 특성에 맞는 지역통계 개발을 최우선시하겠습니다." 19일 제7대 호남지방통계청장에 취임한 김대호(56·사진)는 첫 업무를 시작하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김 심인 청장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조사환경에서 정확한 현장조사로 신뢰받는 국가통계를 생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호남지방통계청이 '지역통계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통계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또 호남통계청 직원들에게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직원들이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한양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통계청 산업통계과장, 경제총조사과장, 조사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양파 가격 상승에 전남 생산량 28% 급증...마늘·보리는 줄어

### 양파 10a당 생산량도 8.4%↑

양파 주산지 전남이 올해는 전년보다 27.9% 많은 57만9042t을 생산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양파 생산량은 57만9042t으로, 전년보다 27.9%(12만6305t) 급증했다. 전남 생산량은 전국의 36.7%를 차지하며, 이어 경남(33만8877t·21.5%), 경북(30만7653t·19.5%)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생산량은 157만6756t으로 1년 전보다 35%(40만8529t) 늘었다. 2019년(159만4450t)과 2014년(158만9957t)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생산량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국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25.8% 늘었다"며 "비대기(몸집이 큰 시기) 생육에 좋은 비가 잦았고 냉해·수해·습해 등 피해 발생은 줄면서 전남지역 10a당(1a=100㎡) 생산량도 8.4%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남 마늘 생산량은 4만7750t으로, 지난해(7만437t)보다 무려 32.2%(-2만2686t) 줄었다. 올 생산량은 지난 1982년(4만2193t) 이후 39년 만에 최저치다. 전남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6.5%(-1419ha) 줄어든 3917ha로 집계됐다. 수년째 마늘 값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으로, 전남 재배면적은 6346ha(2017년)→6030ha(2018년)→5803ha(2019년)→5326ha(2020년)→3917ha(올해) 등 4년 연속 감소 추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올해는 겨울철 기온 저하로 초기 생육이 부진했던 데다가 알이 굵어지는 시기인 4~5월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일조량이 줄어 전남지역 10a당 생산량은 7.8% 감소했다. 전국 마늘 생산량은 30만8532t으로 전년보다 15.1%(-5만4900t) 감소했다. 올해 보리는 전남에서 전년보다 16.4%(-1만372t) 감소한 5만3018t이 생산됐다. 2013년(3만3490t)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다. 전국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0.3%(-1만4800t) 줄어든 12만8869t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전체의 41.1%를 차지한다. 전남 보리 생산량은 소비 부진, 농협 계약재배 가격 하락 등으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 되도록 힘쓰겠다"

#### 권오득 한전KDN 신입본부장

한전KDN은 신입 ICT사업본부장(상임이사)에 권오득(60·사진) 전 한국전력대 구지역본부장이 취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한전KDN은 이날 임시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권 신입 본부장을 선임했다. 권 본부장은 안동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 지난 1989년 한국전력에 입사한 뒤 배전운영과장, 대구지역본부장 등을 지냈다. 권 본부장은 취임 인사로 "탈탄소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 및 미래 전력 정보통신기술

(ICT)에 한전KDN의 역할이 크다"며 "안전과 사람이 먼저인 현장 조성을 위해 현장 작업자의 이력 관리에 노력하는 등 신뢰받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44.04 (-32.87)
↓ 코스닥	1049.83 (-2.15)
↑ 금리(국고채 3년)	1.459 (+0.008)
↑ 환율(USD)	1147.80 (+8.30)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투자가치 100% 확신! 강력추천!**

## 서구 쌍촌동

(한국병원 부근)

- 대 지 : 2,700 m<sup>2</sup>
- 건 물 : 3,704 m<sup>2</sup>
-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 주차장 기계실

**매도가격 협의**

**감정가 5,920,417,660원**

**상담 010-3733-3933**